

‘영원아웃도어’ 최고(古)의 고객과 일본 에코 캠핑을 떠나다

대자연과 호흡하는 캠핑문화 만끽

“영원 이어 영원하라”

동해에서 출발, 현해탄을 거쳐 일본 열도로 향하는 ‘영원아웃도어’ 최고 우정 고객들은 그렇게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영원무역(대표 성기학)의 ‘영원아웃도어’에서 최고 우정 고객을 대상으로 해초여행사와 진행한 일본 캠핑이 성료했다. 지난 9일부터 3박4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 60여 명이 DBS크루즈 페리를 타고 일본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히루젠 캠핑장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에 비해 이미 캠핑문화가 정

착돼 있는 일본 에코 캠핑의 진수를 체험해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원무역 통합브랜드 사업부 장경애 이사는 “지난 37년간 한결같이 ‘영원’을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영원’의 캠핑라인 런칭을 기념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누구나 어린 시절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원’의 모토가 잘 부합된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고 전했다.

/강재진 기자 flykij@ktnews.com



초대형 DBS페리 승선, 일본 출발

11시 30분, 영원무역 금광동 본사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여 명이 집합했다. 점심을 먹은 후 들뜬 마음으로 동해항으로 향했다. 동해로 가는 동안에도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산과 맑은 하늘로 한층 설레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동해에 도착, 영원 프라자 동해점을 방문해 본사에서 미리 준비한 싱싱한 활어회를 싣고 DBS 크루즈 페리호에 올랐다.

DBS크루즈 페리호는 동해를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톡(러시아), 사카이미나토(일본)를 정기운항하고 있는 카페리선이다. 선박제원은 총 1만3000여 톤, 총 정원 530명 승선이 가능하며 사우나, 식당, 카페, 면세점, 나이트 등이 마련돼 있다. 승선권에는 선내 식사와 사우나, 노래방 이용권이 포함돼 있어 15시간의 항해여행이 결코 길지 않다.

배정 받은 방에 간단히 짐을 풀고 선내에 마련된 뷔페식 저녁을 먹은 뒤 일제히 갑판위에서 일본 서부 거점도시 사카이미나토항을 향해 돛을 올리는 모습을 바라봤다.

현해탄을 건너는 동해 바다 빛은 기대 이상으로 깊고 진한 빛을 띠었고 무엇보다 갑판에서 맞는 거센 바다바람은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했다.

20시, 선내 식당에 모여 이번 캠핑의 전반적인 일정, 조별 소개 및 캠핑 시 필요한 고객감사 선물에 증정됐다. 캠핑 휴대품 중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필요한 부분까지 파악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참여 고객은 부부동반, 아들과 엄마, 손자와 온노부부까지 다양했다. 싱싱한 활어회와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아직은 서막이지만 각자 소속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 뒤 내일의 일정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설레는 마음에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다.



자연휴양림, 큐카무라 히루젠 캠핑장

둘째날, 선내 조식을 먹은 후 돛토리현 사카이미나토 항 도착. 전용 차량을 이용해 히루젠 캠핑장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 일본의 대형 마트에 둘러 캠핑장에서 조리할 식재료를 구입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지닌 마트였지만 도시락과 방금 조리된 즉석 음식 코너와 종류가 많았다. 규모에 비해 시식코너가 전혀 없다는 게 우리나라 마트와 다른 점.

일본 국립공원 내 천연휴양림속에 위치한 운젠 큐카무라 리조트에 도착. 푸른 초원에서 점심을 먹을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리조트 내부에서 먹었다.

일본의 특색을 맛본 후 우중(雨)테라피 일정이 시작됐다. 히루젠 너도밤나무 원시림을 걸으며 음이온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다.

현지 가이드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진귀한 야생식물들이 한자리에 펼쳐졌다. 함께 온 아이들도 생전 처음 보는 식물을 보고 이름을 외우는 등 현장 속 자연학습이 저절로 이뤄졌다. 특히 촉촉하게 내리는 비는 삼나무 숲길의 특유한 향기와 어우러져 신비한 자연의 장관을 자아냈다.

히루젠 산림 트레킹코스를 걸을 수 있는 다이센(태산)은 최고봉인 가미히루젠(1202m), 중봉인 나카히루젠(1122m), 하봉인 시모히루젠(1100m)로 이뤄져 있는 산으로 후지산에 이어 두 번



1. 갑판 위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만끽하고 있다. 2. 모든 일정을 마치고 크루즈 페리호에서 하선하고 있다. 3. 이번 행사를 준비한 영원 사업부 소개 (왼쪽부터) 이창용 부장, 장희수 대리, 장경애 이사, 강대홍 대리, 박광철 부장, 신희숙 대리, 김명석 사원, 함필용 대리, 김재록 사원, 최광진 사원. 4. 조상신을 상징하는 조각상. 5. 다이센 산 초입길. 6. 우중(雨) 삼림욕 체험 후 밝고 건강하게 웃고 있다. 7.코펠 등 캠핑용품 대여도 가능하다. 8. 캠핑의 꽃, 캠프파이어 시간.

째로 큰 산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능한 자연의 모습, 산 그대로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

산림 테라피 이후 히루젠 캠핑장으로 이동. 큐카무라 대육장에서 라돈 성분이 높아 신경통, 근육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온천욕을 즐겼다. 창밖에 펼쳐진 푸른 초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온천으로 여정의 피로가 싹가졌다.

본격 캠핑 시작. 각자 조별로 마련된 공간에서 저녁거리를 마련했다. 캠핑하면 빠질 수 없는 고기를 구워먹고 화합을 다지며 이국에서의 감흥을 함께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캠핑의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를 즐기며 두 번째 밤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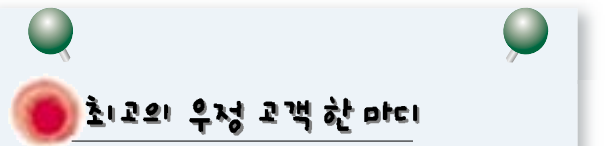


다이센 우유목장, 요괴의 거리 관광

밤새 내린 빗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에 상쾌한 아침을 맞은 셋째날. 우유목장, 과자의 성 등 즐거운 일본 관광이 시작됐다. 다이센 목장에서 신선한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고 등산코스를 체험했다. 등산로로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이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그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 군데 군데 눈에 띄는 조상신을 상징하는 작은 조각상도 독특하게 시선을 끌었다. 등산로 초입에는 다이센산 정보관이 있어 산과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 시간 가량 차로 이동 후 마쓰에시에 도착, 마련된 아기자기 한 만찬을 먹고 ‘영원’ 측에서 추가로 마련한 온천을 즐겼다. 중세 영주성의 성을 본떠 지은 ‘과자의 성’을 방문, 다양한 코너를 돌며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괴만화 선구자 미즈키 시게루 로드에 도착, 120여 개 이상의 요괴 캐릭터와 기념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배에 올랐다.

그동안 친해진 고객들은 여행의 여정을 나누며 마지막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다음날 동해항에 도착, 전용 버스를 나눠 타고 경기도 성남 영원무역으로 돌아와 여행을 마무리했다.



★ 최중언, 최병희 부부 (경기도 안양)

94년 낚시용으로 ‘영원’의 고어자켓을 구매하고 이번 행사에 응모했는데 당첨됐다. 결혼 40주년을 맞은 우리 부부는 자주 여행을 다니기는 하지만 빗속 텐트에서 눈 뜨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나이가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나 전혀 색다른 경험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



★ 이희권 (경기도 성남)

‘영원’과는 이래저래 인연이 많다. 98년도 ‘영원’ 매장에서 나에게 고어자켓 팔던 판매원이 지금의 아내가 됐다. 그 당시 데이트 한번 하려고 구매한 자켓만 해도 엄청나다. 아직 ‘영원’ 매장에 근무하고 있어 함께 오지 못하게 아쉽다.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우중에서 맞는 캠핑 경험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 이규승, 이영숙 부부 (서울 성북구)

15년 전 겨울 고어 자켓을 구매한 게 있어 응모하게 됐다. 텐트에서 잠자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안락하게 보냈다. 살면서 새롭고 색다른 생각이 날 것 같고 애들도 함께 왔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영원’은 오래 되도 새것 같은 느낌을 나는 브랜드다.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영원’ 측에 감사하다.



★ 최현준 군 (천안·볼당초교)

천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왔다. 야외에서 밥도 해 먹고 신나는 시간이었다. 텐트 속에서 잠자는 것도 처음이었고 캠프 파이어, 비를 때 숲속에서 만난 개구리, 신기한 버섯 등 친구들한테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 양복란, 고일권 모자 (서울 구로구)

한국산도 좋지만 일본산은 포근한 엄마 품 같은 느낌이다. 잔잔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산행 시비가 와서 오히려 구름 속에 떠있는 것 같은 운치가 있어 좋았다. 아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